



기성용 행복한 고민
리버풀이냐 QPR이냐

광주출신 기성용(23·셀틱)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기성용은 지난 시즌 셀틱에서 30경기에 출전해 총 6골을 넣으며 팀의 스코티시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팀은 박지성을 영입한 QPR. 마크 휴즈(49) 감독이 기성용을 직접 만나 영입 가능성을 타진했고 지난 9일 열린 박지성의 입단식에서도 "QPR의 감독으로서 기성용을 원한다"며 리버풀을 보냈다.

또한 박지성도 "기성용과 QPR에서 함께 뛰면 좋겠다. 한국 선수이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는 당연히 있지만 경기를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기성용의 입단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기성용의 QPR행을 가로막는 장벽은 이적료. 700만 파운드(약 124억원)의 거액이 부담스럽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버풀이 뛰어 들었다. 잉글랜드 일간지 '더 선'은 11일(한국시각) 리버풀의 브랜드 로저스 신임 감독이 기성용의 영입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식 '패스 축구'를 추구하는 로저스 감독은 중원에서 패싱력이 뛰어난 선수를 찾고 있고, 나이의 능력으로 봤을 때 기성용을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더 선은 "영입 경쟁에서 리버풀과 QPR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해 두 팀의 힘겨루기 속 기성용의 행선지를 속단 하려는 어려운 상황이다.

리버풀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8위에 그쳤지만 리그 우승 18회와 챔피언스리그 우승 5회에 빛나는 명문. 17위로 턱걸이



기성용(셀틱)이 파주 NFC에서 열린 올림 픽축구대표팀 소집훈련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

한 QPR과 비교가 되지 않는 빅클럽이다. 기성용은 평소 리버풀과 주장 스티븐 제라드에 대한 동경을 숨기지 않았다.

코리안 듀오를 앞세워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려는 QPR이나, 또 한명의 빅클럽 스타 탄생이나. 기성용의 한술밥 상대가 박지성이 될지 제라드가 될지 궁금하다.

/유재관기자 jkyou@kwangju.co.kr

'135km 소방수' 최향남 공 왜 못칠까?



- 1 팔이 감춰져 있다 나와 타자들 준비 시간 짧아
2 망설임 없이 바로바로 공 뿌리고 볼끝 힘 실려
3 산전수전 겪으며 더해진 베테랑 노련함도 한 몫

KIA 최향남의 볼끝 세이브의 비밀은 '투구폼'에 있다.

최고령 소방수로 깜짝 등장한 최향남은 8경기에서 8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이어가며 3세이브 2홀드를 기록하고 있다.

화려한 변화구 퍼레이드를 펼치는 것도 아니고 회심의 직구도 140km에 미치지 못하

고 있다. 하지만 타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몰아치고 있다.

선동열 감독이 설명하는 최향남의 성공 비결은 '폼'.

선 감독은 "공을 던질 때 백스윙 하는 오른팔이 뒤에 감춰져 있다가 나온다. 타자들에게는 갑자기 공이 보이는 셈이다. 공은 빠르지 않지만 앞에서 공이 나오기 때문에 타자들이 공을 보고 준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짧다.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다. 그래서

삼진이 많은 것이다"고 언급했다.

까다로운 투구폼에 타자들은 당혹스런 표정으로 방망이도 내어보지 못하고 물러나고 있다.

선 감독이 가장 눈여겨 봤던 부분도 최향남의 폼이었다. 입단 테스트 당시 선 감독은 단 10개의 공을 본 뒤 피칭을 중단시켰다.

무상으로 1년 가량을 쉬었던 것을 감안해 도 제구가 나쁘지 않았고, 피칭시 스윙도 더욱 간결해져서 더 많은 공을 볼 필요가 없었다는 게 선 감독의 설명이다.

망설임 없이 바로바로 공을 뿌리는 것도

타이밍 싸움에서 유리하다. 여기에 볼끝에 힘이 있기 때문에 타자들이 체감하는 공의 스피드는 더 빠르다.

산전수전을 겪으며 더해진 베테랑의 노련함도 한 몫 하고 있다.

선 감독은 "처음 1군 경기에 등판시켰을 때 직구만 던지더라. 자기 공을 테스트 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직구가 살아야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투수다. 영입과정에서 얘기도 있었지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마흔을 넘긴 노장투수가 연륜의 직구로 정면 승부를 하며 강속구를 뿌리는 젊은 마무리 투수를 사이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돌아온 김상현 조커 투입

오늘 롯데전 소사 선발

장맛비에 KIA의 필승 전략에 변화가 생겼다. 10·11일 이를 연속 비가 내리면서 롯데전을 대비했던 에이스 윤석민의 출격이 미뤄졌다.

윤석민의 등판이 두 차례 미뤄진 가운데 국내 마운드에 적응하고 있는 소사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로테이션을 바꿨다.

소사는 마운드 높이가 낮은 대구구장을 선호하지 않는다. 메이저리그와는 다른 마운드 환경이 신임 외국인 선수의 피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소사를 홈에서 등관하도록 했다.

소사의 성적도 원정보다 홈에서 좋다. 소사는 4차례의 홈경기 등판에서 3.96의 방어율로 2승1패를 기록했다.

엔서니의 역할도 달라진다. 선두 싸움중인 롯데·삼성과의 승부를 위해 이번 주 엔서니는 마운드 전면에 아닌 중간에 배치된다.



김상현

래 자리인 선발로 돌아온다.

선동열 감독은 "1~3위 팀과의 9연전이라서 4승5패 정도를 생각했는데 비가 오면서 마운드 운영 계획을 바꿨다. 굳이 투수로 테이션에 대해서 숨길 게 없다. 엔서니를 중간에서 활용한 뒤에 다음 주 선발로 투입할 계획이다. 소사와 윤석민도 두산전 선발로 나서게 된다"고 마운드 전략을 밝혔다.

타선에서는 김상현이 조커다. 이범호에게 휴식을 준 선 감독은 대신 김상현의 파워를 기대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김원섭 첫 울스타 무대

감독추천 선수 출전

KIA의 '명품다리' 김원섭이 처음으로 울스타 무대를 밟는다.

21일 대전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울스타전에 출전할 감독추천 선수 명단이 확정됐다.

웨스턴리거를 지휘하는 선동열 감독은 김원섭·앤서니·김상훈·김선빈(이상 KIA), 주키치·유원상·김태균(이상 LG), 박찬호·최진행(이상 한화), 나이트·손승락·서건창(이상 넥센)을 추천선수로 선정했다.

류종일 감독이 이끄는 이스턴 리그에서는



김원섭

장원삼·오승환·진갑용·김상수(이상 삼성), 윤희상·최정·김강민(이상 SK), 이원찬·홍상삼·프록터·양의지·김현수(이상 두산)가 추천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팬투표로 선정된 베스트 멤버와 추천선수로 선발된 44명 중 김원섭과 서건창 등 12명은 데뷔 후 첫 울스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화순초 야구 도지사기 우승

화순초가 제42회 도지사기 전남학생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화순초는 최근 여수 진남야구장에서 끝난 대회 결승에서 여수서초를 13-1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5개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화순고는 3년 만에 대회 우승기를 되찾았다. 지난 4월 교육감기 야구대회에 이어 시즌 두 번째 우승이다. 화순초는 지난 6월 대한야구협회장배 전국초등학교야구대회에서는 8강 진출을 이뤘다.



화순초 야구팀

이대현이 대회 최우수선수상을 받았고, 김태현은 우수투수상, 박준형은 타격상을 받았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에어아시아로 간 박지성
아시아나항공 "난감하네"

홍보대사가 경쟁사로..

'박지성의 이적을 어찌하오리까.'

박지성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퀸스파크레인저스(QPR)로 전적 이적하자 아시아나항공이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맨체스터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하던 박지성을 2007년 홍보대사로 위촉한 이래 6년째 박지성과 그의 부모에게 1등석 항공권을 제공하며 꾸준히 후원사 역할을 해왔다.

이런 아시아나가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박지성의 새 팀 QPR의 공식 후원사가 다름 아닌 동종업계의 잠재적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QPR의 구단주는 말레이시아 저가항공 회사 에어아시아를 이끌고 있는 토니 페르난데스이다.

박지성은 지난 9일(현지시각) 런던에서 열린 QPR 입단 기자회견에서 붉은색 유니폼을 차려입은 에어아시아 승무원들에 둘러싸인 채 에어아시아 로고가 선명한 새 유니폼을 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몇 년째 공들여왔던 박지성이 공교롭게도 경쟁사의 품에 안기는 모습은 아시아나로서는 쓸쓸한 장면이었다.

아시아 최대의 저가항공사인 에어아시아는 현재 자회사 에어아시아엑스가 인천~무라라푸르 노선을 운항하고 있어

이 노선에 취항하지 않은 아시아나와는 아직 사업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

하지만 에어아시아가 일본에 설립한 자회사 에어아시아재팬이 빠르면 연내 나리타~서울, 나리타~부산 노선을 개설할 예정이다.

과격적인 가격으로 아시아 항공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는 에어아시아가 이 노선에 뜰 경우 일본 노선이 주력 노선 가운데 하나인 아시아나의 파이를 빼앗아갈 것은 자명한 사실.

에어아시아는 박지성의 높은 인기를 이용해 국내와 동남아시아에서 박지성 마케팅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지성이 에어아시아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프리미어리그를 누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내에서는 에어아시아의 인지도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지난 4월 박지성과 1년간 홍보대사 위촉계약 연장을 해 내년 4월까지 품쪽없이 박지성에게 비행티켓을 후원해야 하는 아시아나는 억울할 법하다.

아시아나항공측은 아직 이 문제와 관련해 뚜렷한 계획은 없다면서도 향후 박지성의 소속사인 JSM리미티드와 협의해 이 상황을 상식과 상도위에 어긋나지 않는 쪽으로 원만하게 풀어나가고 싶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연합뉴스